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북한의
대남공작 변화양상과 향후 전망**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 변화양상과 향후 전망**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송 경 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의 경향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 전술	5
1.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5
가. 대남전략의 개념	5
나. 대남전략 목표와 기조	7
2.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	9
가. 전술의 개념	9
나. 전술의 기본 유형	10
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	12
III.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	19
1. 정찰총국	19
가. 작전국	20
나. 정찰국	22
다. 해외정보국	23
2. 225국(구 대외연락부)	24
3. 통일전선부	25

IV.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와 향후 전망	27
1. 김일성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	27
가. 무력통일추진기(1945~1953)	27
나. 전후복구 및 폭력혁명시도기(1954~1970)	31
다. 위장평화공세기(1970~1975)	36
2. 김정일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	37
가. 통일전선 및 우회침투강화기(1975~1979)	37
나. 통일투쟁 및 대화공세강화기(1980~2000)	39
다. 대남유화국면기(2000~2009)	43
3. 김정은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	45
가. 공세적 대남공작추진기(2009~현재)	45
나. 김정은시대 대남공작의 특징	47
다. 향후 대남공작 전망	50
 IV. 결론	 53
 참고문헌	 5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고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편승하여 기존의 당 중심의 대남 공작을 군(국방위원회) 중심의 대남공작으로 전면 개편하고 국방위원회 산하 정찰총국을 신설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의 대남공작은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당과 군에서 전담하여 왔다. 그러나 당 주도의 대남공작보다는 군 중심의 대남공작이 더욱 강력하고 공세적 폭력투쟁이 전개되었다.¹⁾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의 대남공작은 매우 공세적이고 전투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발사,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2009년 11월 10일 제3차 서해교전, 2009년 11월 황장엽 암살조 직파사건(정찰총국 공작원), 2010년 3월 26일 천안

1)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북한은(김창봉 민족보위상, 허봉학 대남사업총국장, 김정태 특수 정찰총국장시기) 그 어느 때 보다도 비타협적이고 폭력적인 대남공작을 추진하였다.

함폭침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도발 및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농축 생산시설 전격공개 등에서 입증되었다.²⁾

그러나 북한의 대남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과거 군사정권시기보다도 매우 헤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의 사상 전 및 이념 전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2010년 천안함폭침사건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³⁾

지금도 북한은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사로잡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해방과 혁명이라는 논리에서 접근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남북한 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와 변화양상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김정은 정권의 대남공작을 전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유동열,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자유민주연구(자유민주연구학회, 2011. 1. 통권 제5권 제2호), 104~105면.

3) ①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 SBS가 2010년 5월 2,288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64%에 불과하였다.

②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2010년 7월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신뢰한다 32.5%에 비해 35.7%로 높게 나타났다.

③ 리얼미터가 2010년 9월 13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부 최종 발표에 대해 신뢰의견이 47.8%, 불신의견이 40%로 확인되었다.

④ 문화일보가 2010년 9월 14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동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신뢰한다고 57.9%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38.6%로 나타났다. 제성호, “국민 안보의식의 현주소 진단”, 자유민주연구(자유민주연구학회, 2011.1). 62~63면.

2. 선행연구의 경향

북한의 대남공작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공작에 관한 연구는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첫째,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둘째, 북한의 지하당 구축 공작, 셋째,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 넷째, 대남 테러공작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들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제3차 당 대표자회를 전후한 시점에서 북한의 후계체제에 관한 연구가 김정봉, 김용현, 윤규식, 변상정, 권병일, 유호열, 정성강, 이수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의 대남공작 변화양상과 김정은 정권의 대남공작을 전망하는데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는 먼저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기초를 살펴보고, 대남공작 기구와 단계적 대남공작의 특징을 분석 평가한 후 김정은 정권의 향후 대남공작을 전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을 중심으로 한 문헌 중심적 내용분석과 동시에 역사적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주요자료는 북한의 원전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료, 학술회의 자료, 북한연구학자들의 논문과 관계문헌, 정부의 간행물을 비롯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 I.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의 경향,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 II.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전술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대남혁명 전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대남전략의 개념과 대남전략 목표와 기초를, 후자에서는 전술의 개념, 전술의 기본 유형,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III.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에서는 정찰총국, 225국, 통일전선부로 나누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 IV.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와 향후 전망에서는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로 나누어 분석 평가하였다.
김일성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에서는 무력통일추진기, 전후복구 및 폭력혁명시도기, 위장평화공세기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김정일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에서는 통일전선 및 우회침투강화기, 통일투쟁 및 대화공세강화기, 대남유화국면기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김정은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에서는 공세적 대남공작추진기, 김정은시대 대남공작의 특징, 향후 전망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V. 결론에서는 본 연구물의 결과를 요약하고 보안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전술

1.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가. 대남전략의 개념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혁명 전략·전술⁴⁾은 공산주의 혁명과 관련된 정치적 개념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반 책략 및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 멸망과 사회주의 사회의 승리가 필연적이라는 신념에 근거하여 전 세계를 공산화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 방침으로 전략·전술의 실천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산주의 혁명 전략·전술은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해 태동하였고 레닌에 의해 본격화되었으며 스탈린에 의해 그 이론적 틀이 정식화되고 완성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 전략·전술은 대중을 혁명에 동원하고 유도하는 책략적 운동기법으로 역사적인 상황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여 왔다. 그 원형적인 것만 보더라도 볼셰비키 혁명 전략·전술, 스탈린의 동유럽공산화 전략·전술, 모택동의 중공혁명 전략·전술 등 다양성을 띠고 있다.

4) 송경호,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 및 추진양상”(치안정책연구소, 2005 연구보고서), 14~16면.

전략에 대해서 스탈린은 “전략(strategy)이란 혁명의 해당 단계의 토대에서 노동자계급의 주공방향을 결정하고 혁명적 역량의 적절한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혁명단계 전 기간에 걸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서는 “전략이란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노동계급의 주되는 공격방향을 결정하며 노동계급의 주위에 혁명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옹기 배치하는 등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일정한 혁명단계에 있어서 정세의 변동에 따라 그 시기에 알맞은 투쟁방침을 결정하며 시기적으로는 투쟁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전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말한다”⁵⁾라고 밝혔다.

특히 전략은 상황의 일시적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⁶⁾ 또한 혁명단계에서 타도할 대상을 결정하고 혁명동력을 편성하여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기본적인 투쟁지침인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타도하고 공산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강화시켜 나가는 계략으로서 대외전략의 하부개념이며 북한의 국가전략이다.

따라서 대남 전략은 북한 체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변화와 남북관계,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0), 443면.

6) J. V. Stalin, The foundations of Leninism(Peking : foreign Languages press, 1965), p. 84.

나.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와 기초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달성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여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이라는 대남혁명관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먼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 부르는 남조선 혁명을 수행한 다음 혁명에 의해 성립된 공산정권과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고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산화 혁명 즉, 전 조선공산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대남전략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⁷⁾

대남전략 기초는 ‘민주기지노선’과 ‘인민민주주의혁명’, ‘세계의 반제세력과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 혁명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⁸⁾

김일성은 1964년 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을 확정하고 1965년 4월 14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 역량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 인민과 국제혁명 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⁹⁾ 라고 밝혔다.

나아가 조국통일의 전도에는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가 있고, 어느 방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이 수행되든지 간에 그것은 세계 제국주의의

7)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6면.

8) 尹元求 外, 共產主義와 急進思想 批判(地球文化社, 1986), 125면.

9)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239면.

원흉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이며 혁명과 반혁명,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배족 세력과의 날카로운 힘의 대결이며 예속과 자주성 간의 심각한 투쟁으로 규정하였다.

더구나 혁명역량 강화를 언제나 혁명투쟁의 중심에 놓고 혁명적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고 혁명승리를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¹⁰⁾

현 시점에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혁명역량 강화의 준비 정도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북한의 혁명역량 준비정도에서 볼 때 정치 사상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② 국제혁명 역량 준비정도에서 볼 때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제혁명 역량은 크게 약화되어 있다.
- ③ 남한혁명 역량 준비정도에서 볼 때 북한은 남한의 혁명역량이 매우 양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남한 내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친북한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매우 고무되어 있으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최고의 심혈을 남한 혁명역량 강화에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송경호, 앞의 책, 34~35면.

2.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

가. 전술의 개념

전술이란 “전략이 정하고 있는 기본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방침”을 의미한다.

스탈린은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 제하에서 전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술은 그때그때의 혁명운동의 고조기 및 퇴조기와 같은 비교적 단기간의 프롤레타리아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것이며, 전략의 경우처럼 본질적이 아닌 목표를 가지며, 투쟁과 조직의 낡은 형태를 새 형태로 바꾸며, 낡은 구호를 새 구호로 바꾸며, 또 그 형태들을 종합하는 등으로 그 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¹¹⁾

특히 전술은 “운동의 만조와 간조, 혁명의 양양과 침체 등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프롤레타리아 행동노선을 결정하고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교체하며 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노선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을 말한다.¹²⁾

북한의 정치용어 사전에서는 “전술은 일정한 혁명단계에 있어서 정세의 변동에 따라 그 시기에 알맞은 투쟁방법을 결정하며 시기적으로 같은 전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강령”¹³⁾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혁명 전략·전술은 전략이 혁명운동에 있어서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기본적 계략이라 한다면, 전술은 가변성이 있는 구체적인 행동수법이면서 또한 전략에 종속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11) 북한의 대남공작전술, 2004 보안실무과정(경찰수사보안연수소, 2004), 306면.

12) 서중건, 스탈린선집 1(전진출판사, 1988), 129면.

13)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0), 443면.

때문에 전략은 혁명이 성사될 때까지 거시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반면에 전술은 미시적이며 단기간에 행동노선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나. 전술의 기본 유형

전술의 기본유형¹⁴⁾은 공격형 전술, 후퇴형 전술, 방어형 전술, 우회형 전술로 구분 할 수 있다.

1) 공격형 전술

공격형 전술은 혁명의 주, 객관적 여건이 양양기(만조기)라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전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만조기¹⁵⁾가 조성되면 때를 놓치지 않고 피아의 역량관계를 타산하여 무장봉기를 단행하여 왔다.

만조기의 주요투쟁 형태는 정치적 태업과 시위, 국회보이코트, 폭동전개 및 전술적 표어를 제시하여 투쟁하게 되며 그 조직형태로는 혁명적 공장위원회, 농민위원회를 비롯한 공공연한 공산당의 표현활동 등으로 나타난다.

2) 후퇴형 전술

후퇴형 전술은 공격이 상대방의 우세한 공격에 직면하여 오히려 위험에 처했을 때 지체 없이 후퇴하여 자체의 생존유지를 꾀하는 수난기(간조기) 전술로 퇴각과 협상이 포함된다.

14) 육군본부, 공산주의 비판(육군본부, 1974), 305~327면.

15) 만조기란 상층 지도계급 내부에 구열이 일어나서 기존체제의 유지가 어렵게 되거나 하층계급의 고통이 극도로 악화되어 반항 기운이 충만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후퇴시기에는 간부 구출과 주요진지의 보수 보존, 대열을 정비하고 자체 역량이 강화되면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게 된다.

- ① 퇴각은 덜 중요한 진지를 내주고 계획적으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면서 예정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타협은 일정한 지역과 자체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정권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타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퇴시기에는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가 간조기용으로 교체되며 지하에 숨어들어 전력을 재정비 하게 된다.

3) 방어형 전술

방어형 전술은 후퇴 후 자체전력을 재정비하는 방어기간의 전술을 의미한다. 침체기에는 주로 수세적 방어로 임하게 되며 정세가 양양되면 점차 공격적 방어로 전환하게 된다.

대표적인 전술로는 평화공존전술, 중립화전술, 침투 폭로전술 등이 있다.

- ① 평화공존전술은 주적을 상대로 자체 역량을 비축하는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려는 전술을 의미한다.
- ② 중립화전술은 중간 부동층을 반정부적, 친공적 집단으로 만들려는 전술을 말한다.
- ③ 침투 폭로전술은 유리한 객관적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술이다.

특히 방어기간 중에는 간조기 및 만조기 투쟁, 조직형태 및 표어를 배합하여 추진하게 되며 정세의 양양 정도에 따라 공격적 요소를 가중시켜 나가고 있다.

4) 우회형 전술

우회형 전술은 혁명운동이 대체로 양양기에 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의 전술이다. 대표적인 전술로는 통일전선에 의한 우회공격이 있다.¹⁶⁾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 수세 및 공세적 방어진술과 밀접히 결합하여 가능한 투쟁과 조직형태, 표어를 선택하여 만조기에 도달할 때 정면공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역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¹⁷⁾ 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시하였다.

- ① 혁명 준비기의 기본과업으로는 혁명역량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켜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을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투쟁을 기본투쟁 형식으로 하여 혁명역량을 확대 강화시키면서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을 성숙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혁명의 결정적시기의 기본과업으로는 정권쟁취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모든 혁명역량을 총동원 하여 최후결전을 벌려 나갈 것¹⁸⁾을 요구하고 나섰다.

16) 통일전선 전술은 위로부터 또는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구축, 국제적 통일전선의 형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17)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92면.

일반적으로 볼 때 혁명 준비기의 혁명역량관계는 대체로 혁명역량이 반혁명에 비해 전략적 열세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계급적 원수들과의 결정적인 정면대결을 피하고 암초를 에돌아가면서라도 필요 없는 희생으로부터 혁명역량을 극력 보존할 것¹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역량을 장성시키는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²⁰⁾ 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나아가 “남조선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함께 이에 비해 인민들의 혁명적각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겠는가를 똑똑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들의 각성이 낮아가지고는 혁명의 승리를 바랄 수 없습니다”²¹⁾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인식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국가임을 배제하고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예속정권으로 매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분단의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시키면서 미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해야 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대남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대남인식의 바탕 하에 북한정권은 대남전략을 수립하고 대남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남전술의 구성요소와 형태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18)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사회과학출판사, 1975), 127~128면.

19) 위의 책, 130면.

20) 김일성, 앞의 책, 397면.

21) 위의 책, 88면.

22) 송경호, 앞의 책, 51~59면.

- ① 조직형태의 전술에는 지하당구축전술, 통일전선전술, 프락치 전술이 있다.
- ② 투쟁형태의 전술에는 합법 비합법 반합법투쟁 전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전술,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전술, 테러 전술, 게릴라 전술, 무장봉기 전술, 인민전쟁 전술, 대화 전술, 평화공존 전술, 선거투쟁 전술, 국군와해 전술 등을 내세웠다.
- ③ 표어형태의 전술에는 선동슬로건의 배합 전술, 폭로 전술, 기타 전술을 사용하여 왔다.

1) 지하당 구축전술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합법적 지위를 갖춘 독자적 정당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독자적인 정당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혁명투쟁은 개개인의 힘으로는 쟁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군중 속에 당 조직을 내오고 이를 토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전선에서 군중을 최대한 조직 동원하여야 혁명승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하당 건설의 조직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당 건설과 활동을 철저히 비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②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들로 당을 조직해야 한다.
- ③ 혁명의 주력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 ④ 당 기반 확대를 위해 대중조직사업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정일이 제시한 3단계 공작방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23)

2) 대중투쟁 전술

북한은 대중투쟁²⁴⁾은 혁명준비기에 있어서 혁명역량 장성의 기본담보라고 밝혔다.

나아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은 정확한 투쟁구호²⁵⁾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일성은 대중투쟁 전술에 있어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 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투쟁 형태와 투쟁방법을 옹계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나가야 할 것”²⁶⁾을 촉구한 바 있으며, 김정일도 정치투쟁이 주권전취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가장 높은 형태의 계급투쟁이며 폭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북한이 내세운 대중투쟁 전술을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치투쟁은 계급투쟁으로 압박자, 착취자를 반대하는 투쟁이며, 반

23) 제1단계는 지도핵심 공작원이 남한에 침투하여 안전한 지대에 정착하여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합법적으로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대중적 조직·지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단계는 당 중앙위 승인 하에 합법·반합법·비합법을 결합한 지하당 조직 건설을 추진하여 주요 요소에 핵심거점조직을 확보하는 단계를 말한다.

24) 허중호, 앞의 책, 145~154면.

25) 대중투쟁 구호를 작성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군중의 요구와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대중투쟁 구호에 있어서 전략적 구호나 전술적 내용을 담은 구호, 정치적 구호와 경제적 구호, 그리고 민족적 구호와 계급적 구호 등을 배합할 것과 투쟁 형태와 방법에 따라 경제적 구호와 정치적 구호를 옹계 결합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26)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487면.

동적 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 전취한 정권을 유지, 공고히 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기까지의 투쟁을 포괄하고 있다.

- ② 경제투쟁은 반드시 정치투쟁으로 발전해야 하며 정치투쟁과 밀접하게 결합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정치투쟁도 경제투쟁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투쟁의 결합 속에서만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 ③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배합을 주장하고 있다.²⁷⁾
- ④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의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²⁸⁾

3) 통일전선 전술

통일전선 전술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혁명의 전략단계에서 그 혁명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묶은 정치적 연합을 말한다.²⁹⁾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로서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공산당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고

27) 북한은 한국사회에서의 ① 합법투쟁은 식민지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비합법투쟁은 식민지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법률 밖의 요구를 내걸고 그러한 조직에 군중을 묶어세워 싸우는 지하투쟁을 의미한다. ③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옹기결합해야만 최악의 가능성을 예견성 있게 대처하면서 온갖 유리한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혁명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으며 혁명역량을 양성 강화하고 적들의 어떠한 반혁명적공세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28) ① 폭력투쟁은 특수한 형태의 정치투쟁이며 반혁명적 폭력을 짓 부시는 위력한 수단으로 결정적시기에는 적의 아성을 짓 부시고 주권을 전취하는 가장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② 비폭력투쟁은 폭력투쟁 외의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광범위한 군중을 혁명투쟁에 끌어들이 혁명적 실천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화 과정을 촉진하여 결정적 투쟁에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9) 허중호, 앞의 책, 102면.

판단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기법이다.³⁰⁾

북한 정권은 한국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집권자를 제외한 모든 세력과 일시적 기만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권력탈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단계적 과정을 은폐와 위장으로 전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 협상과 기만을 종합·선택적으로 행사하는 통일전선을 추진하여 왔다.³¹⁾

통일전선의 형성원칙은 조직적 원칙과 전술적 원칙이 있다.

- ① 조직상의 원칙은 계급노선을 견지하면서 균중노선을 결합시키는 원칙이다. 즉 전위당 영도 하에 주력군인 노농학동맹 및 진보적 지식인을 핵심으로 삼는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소생산자, 하층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 및 각층 민중과 연합하는 균중노선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전술상의 원칙은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통일전선체내에서 중간층, 민족 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투쟁하는 원칙³²⁾을 의미한다.

특히 통일전선을 추구하는데 있어 북한은 3대 장애요소로 주한미군, 한국정부, 반공주민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재야 정치세력과 급진노조, 주사파 등의 연합전선을 형성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약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2004 보안실무과정, 앞의 책, 309면.

31) 김호성 외, 현대사회와 이념(문화사, 1992), 320면.

32) 2004 보안실무과정, 앞의 책, 310면.

4) 국군와해 전술

북한은 “국군병사들과 장교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돌려세우는 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국군과의 사업을 잘하여 병사대중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 것”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국군을 미제의 침략전쟁에 복무하는 식민지 고용군대로 매도하면서 국군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의식화하여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월북자 가족 및 피해자 가족, 현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선차적 공작대상으로 선정하고 군내부의 지하당 세포조직 건설과 이를 통한 군사정보의 수집, 군인들의 의식화 및 조직화, 근무 질서의 마비 등을 꾀하고 있다.

Ⅲ.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

1. 정찰총국

북한의 대남공작³³⁾은 과거 당 비서국에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대남사업담당비서를 두고 통일전선부 부장이 대남사업담당 비서를 겸직하면서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를 직접 총괄하여 왔다.

또한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국가안전보위부 반탐국 및 대외정보국에 각기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최근에는 대남공작기구를 개편하여 기존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을 통폐합하여 정찰총국을 신설하였다.

정찰총국은 국장 예하 지휘부와 직속부대, 작전국, 정찰국, 해외정보국을 두고 있다.

현재 정찰총국이 대남·대외공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찰총국은 편제상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이지만 정찰총국장→국방위부위원장→국방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치안정책연구소, 2010 연구보고서), 31~35면.

가. 작전국

작전국은 침투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 침투공작원 호송, 안내, 복귀, 대남테러공작, 대남침투루트 개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국장 예하 지휘부와 직속부대, 김정일정치군사대학, 6개의 파견기지(연락소)를 두고 있다.

작전국은 5년 단위로 남한 관련 모든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의 연락소(초대소)에서는 연간 70여 명(1회 4개조 이상)이 남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공작 실패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⁴⁾

1) 김정일정치군사대학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은 대남사업요원 및 공작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5년제 교육기관이며 평양시 룡성구역 신미리에 위치한다.

대학장 예하 지휘부와 직속부대, 6개의 파견기지, 4개 분교(금강산·묘향산·칠보산지구 등), 이남환경실습관을 두고 있다.

공작원(대학생)의 선발은 대남관련자들의 자녀, 혁명가유자녀, 당성이 강하고 체력 및 두뇌가 우수한자 중에서 엄격한 심사로 선발되며 1년에 300~400여 명의 공작원이 양성된다.

주요교육 및 훈련으로는 정치사상교육을 비롯하여 사격, 격술, 폭파, 수영, 잠수, 낙하산, 침투, 납치, 통신, 운전교육과 지하당 조직운영방법, 지하당 사업원칙, 집행기술 등 고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4) 2004 보안실무과정, 앞의 책, 314~315면.

2) 파견기지

파견기지는 4개의 해상연락소와 2개의 육상연락소를 두고 있다.

해상연락소는 청진, 원산, 남포, 해주에 두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해외 침투 및 대남공작을 기본임무로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간첩 침투 및 복귀호송 안내, 해상군사 및 지형정찰, 납치, 침투루트 개척 및 무인포스트 발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해상유격전, 폭파전, 게릴라 물자공급 등의 임무를 담당 수행하게 된다.

- ① 청진연락소는 청진시 신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 ② 원산연락소는 원산시 북망산 일대에 위치하며 동해 군사 분계선 이남↔부산 가덕도↔일본지역 해역을 담당한다.
- ③ 남포연락소는 남포시 남포구역에 위치하며 목포↔거제도↔제주해역을 담당하고 있다.
- ④ 해주연락소는 해주시 양지리에 위치하며 서해 군사 분계선 이남↔목포 이북해역을 담당한다.

육상연락소는 사리원, 개성에 두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육상침투간첩 안내 및 복귀 호송, 침투담당구역 루트개척 · 지형정찰 등의 임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다.

- ① 사리원연락소는 사리원시에 위치하며 동부지역↔중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 ② 개성연락소는 개성시에 위치하며 중부지역↔서부지역을 담당한다.

나. 정찰국

정찰국은 편제상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이지만 국방위원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찰국의 주요임무는 총참모부와 예하 특수부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전략 및 전술목표를 공격 파괴하고 테러 및 혁명집단 군사훈련 등을 수행한다.

특히 무장공비 양성 · 납과 · 해방구 형성을 위한 유격전 전개 · 요인 암살 · 산업시설 파괴 · 군사정찰 · 납치 및 대남 군사정보 수집, 정규전 부대 공격지원 및 교란작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³⁵⁾

국장 예하 지휘부와 직속부대, 4개의 저격여단, 5개의 정찰대대, 448군부대, 남포해상특수부대, 12개의 지원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저격여단의 경우 총병력은 4,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단장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10개 정찰대대로 편성되었다.

전투 기본단위는 10명이며 전원 군관(장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수전의 경우에는 3~5명의 정찰조를 운영한다.

정찰국 직속 정찰대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임무를 전담하고 있다.³⁶⁾

- ① 24 정찰대대의 경우 평양에 위치하며 집체격술 시범부대로 대남침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② 69 정찰대대의 경우 해외침투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71·72정찰대대는 공중낙하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

35)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과 1996년 10월 강릉 잠수함침투사건도 정찰국이 주도하였다.

36) 김현기, “북한 특수부대의 실체”(국방저널, 2001. 11), 29~32면.

448 부대는 원산시 두방리에 위치하며, 남포해상 특수부대는 남포시 검덕리에 배치되어 있다. 본 부대의 임무는 침투루트 개척, 무인포스트 발굴 및 매몰 등의 임무를 담당 수행한다.

711 군부대는 유사시 한국에 침투하여 요인 납치, 주요시설 파괴, 열차전복과 철도 폭파 등의 임무를 담당 수행하는 부대이다.

해상처는 처장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2·3·4 기지와 22 전대를 두고 있다.

특히 22 전대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특수부대 요원을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해상침투 임무를 수행한다.

다. 해외정보국

해외정보국은 대외·대남 정보수집과 대남·해외 간첩공작, 국제 및 대남테러 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김정은과 당 조직지도부의 직접적 지도를 받는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대남 부서들의 사업을 검증 또는 감독을 겸임하는 정보조직으로 알려졌다.

주요 임무는 “긴급 대남·대외 정보를 통해 시기별 특성에 따라 제때에 대남·대외 정책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평시에는 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에 입각한 행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통일전선 사업의 검증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그 사업을 측면으로 지원” 하는 임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남·대미·대일공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일전선부 사업에 대한 객관적 및 현실 검증과 나타난 결함에 대한 해결방도를 제시하고 그 실행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기별 중요 대상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테러 파괴공작, 인원 유인·납치·음해공작 및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직하여 실천하여 왔다.

해외정보국의 편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구 대외정보조사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장 이하 2명의 부국장과 대남정보조사과·대일정보조사과·국제정보조사과·대미정보조사과·동남아정보조사과·종합과·작전과·교육과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별 평균 인원은 7~8명에서 12~13명으로 예상되며, 종합과 작전과는 25~30명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정보국은 주재국의 영주권과 위장 장기거주자들, 위장사업가들, 유인 흡수된 현지인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아지트 외에 해외의 필요한 지역들에 각종 명목으로 수십 개의 대표부와 대표들 속에 전문 요원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³⁷⁾

특히 작전과 산하에는 300여명의 특수부대가 배치되어 언제 어디서나 침투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³⁸⁾

2. 225국(구 대외연락부)

225국³⁹⁾은 북한의 대남공작 주무부서로서 공작원 밀봉교육과 남한 내 지하당 구축 및 해외공작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37) 김정민, “북한노동당 35호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북한 2000년 5월호(북한연구소, 2000.5), 81~83면.

38) 이들 특수부대원들은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힌두어 등 각국 외국어 실력자 및 남한식 발음과 한국 사회생활 습득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39) 유동열, “한국좌파운동 현황분석”, 자유민주연구 2010. 8(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205면.

또한 남한혁명의 주력군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에 몰두하며 직접 한국 내 주사파와 같은 좌익세력과 반정부인사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의 교란을 획책하면서 국내 좌익핵심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이다.

남한 내 지하당 건설을 비롯하여 정당, 사회단체, 군부에 대한 공작거점을 구축하고 통일전선 형성, 공작전술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등 대남혁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 수행한다.⁴⁰⁾

현재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담당과 및 사회 지도층 담당과, 해외담당과 등 세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외교포 및 공작자금을 조달하는 위장무역회사인 대성총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장 예하 5~6명의 지도원을 두고 있으며 지도원 1명이 2~3개 군을 담당하면서 공작활동을 조직·지도·감독·운영하고 있다.

3.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대남정책의 핵심부서이며 통일전선 공작을 주관하는 부서이다. 1977년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신설되었다.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부장 예하 7개 부부장과 30개과, 연구소, 연락소, 전위단체 등으로 편성⁴¹⁾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국내 좌익운동권의 지도 업무 등을 담당 수행한다.

주요 부서로는 직접침투과, 남북회담과, 해외담당과, 통일정책연구원,

40) 1992년 9월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사건과 1995년 10월 부여무장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11월 최정남·강연정 부부 간첩사건 등을 주도한 바 있다.

41) 국방부, 국방백서(1996-1997), 국방부, 1996. 57면.

외곽 단체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통일촉진협회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성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를 두고 있다.

IV.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와 향후 전망

북한의 대남공작⁴²⁾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내부 변화와 남북관계,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화, 주변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를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 김정은시대로 구분하여 시기별 대남공작 특징과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일성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

김일성시대의 대남공작⁴³⁾은 대남공작의 전성기와 대남공작 침체기를 모두 경험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무력통일추진기, 전후복구 및 폭력혁명시도기, 위장평화공세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무력통일추진기(1945~1953)

북한은 해방 후 남침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혁명적 민주기지 창설노선을 제시하고 민주기지를 강화시켜 왔다. 또한 남노당 세력과 배합한 각종 소요 및 한국사회 교란, 마비를 획책하였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의 철수는 남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가증시켰다. 더구나 미국은 1950년 1월 12일 에치슨 미 국무장관을 통

42) 송경호, 앞의 책, 74~83면.

43) 김일성시대 대남공작은 1945년부터 1975년까지 김정일이 직접 대남공작을 담당하기 이전 시기를 의미한다.

해 한국을 미국의 극동방위선(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힘입어 북한은 무력통일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2일 각 도 내무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와 내무기관들의 당면과업”을 통해 최전방 군인들과 후방지원 행정부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철저한 전투준비와 전투훈련의 강화 및 반항공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⁴⁴⁾

1950년 6월 25일 전쟁 개시 불과 몇 시간 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이승만 역도들의 군대가 38선 이북에 대한 전면적 진공을 개시하였다”⁴⁵⁾고 발표하면서 남한 각 지역에 남노당계 당 간부를 파견하여 각 지구당을 양성화시켜 나갈 것과 남한 국민들이 인민군의 남침작전을 지원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1951년 6월 38선 부근에서 방어선이 고착상태를 보이자 당 연락부가 대남공작을 총책임지고 남노당 재건공작과 전쟁 전 폭동 및 반란사건 잔존세력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금강학원(공작원 양성기지)을 확대 개편하고 최고사령부 직속으로 526군부대(일명 유격지도처)를 신설하였다. 또한 이승업을 대남담당 비서로, 배철을 연락부장으로 임명하고 남노당 간부들을 전원 연락부와 금강학원, 526군부대에 배치하여 대남공작을 한층 강화시켰다.⁴⁶⁾

이에 따라 1951년 6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남파된 공작원의 수는 무려 1천 5백여 명에 달하였다. 김일성은 남한 지역에 일부 남아 있던 이현상 빨치산부대와 남도부 빨치산부대 마저 1952년 동기 토벌작전에서 소탕되자 195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4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5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88~504면.

45) 이정식 외,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돌베개, 1986), 503면.

46) 당시 공작원 양성은 단기교육 3개월 속성 반으로 1개 반에 50명 단위로 추진하였고 공작원의 준비 정도에 따라 2명 1조 단위로 남파시켰다. 이들 공작원들은 주로 지하당 연고지 공작과 각 지구별 유격대를 충원하는데 투입되었다.

를 소집하고 남한혁명 실패의 책임을 남노당 지도부에 전가시켰다.⁴⁷⁾

이시기 북한의 대남공작은 합법, 반합법, 비합법투쟁을 배합하여 한국 사회의 내부 격동기를 이용한 위장평화공세와 무력통일의 이중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한국전쟁시기에는 비합법적인 군사정보 수집과 전쟁 보조수단의 정치공작에 중점을 두었다.⁴⁸⁾

더구나 “3당 합당과 남노당 흡수공작, 우익 및 중간정당 사회단체와의 제휴합작과 저명인사 매수 포섭, 국회 프락치공작, 군 침투 및 와해공작 그리고 민주주의민족전선을 표방한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공작 등”⁴⁹⁾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남한의 군사력 약화와 정치, 경제, 군사력의 대남 우위, 남한 사회의 혼란 등에 편승하여 혁명의 주객관적 상황이고조된 결정적시기(만조기)로 판단하고 혁명역량을 결정적 담보로 한 무력해방론에 입각하여 남한 전 지역으로 혁명을 확산시킨다는 민족해방전쟁의 명분을 내세우고 전면적인 남침을 자행하는 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남한지역에 잠재해 있던 지하당이 붕괴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지하당 재건공작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쟁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빨치산 식 후방교란과 민중봉기 식의 혼란을 조성하면서 특수부대를 통한 제2전선 형성 등 전쟁 중에도 대남공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47) 박헌영 종파여독을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1953년 6월까지 이승엽, 배철, 맹종호 등 13명을 사형에 처하였고 6백여 명에게 중형선고가 확정되었고 총 1만여 명을 숙청하였다.

48) 1단계에서는 무력침공과 남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한국 내 폭동과 파괴, 교란, 전선 원호지원에 집중하여 왔다. 전쟁 2단계에서는 패주하는 북한군의 후퇴를 보장하고 제2전선 형성 등 게릴라 투쟁, 한·미군 및 양 국가의 중상, 비방, 모략책동을 강화하였다. 전쟁 3단계에서는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도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게릴라 부대와 남노당 조직 및 당원들의 저항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49)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0면.

주요 사건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⁵⁰⁾, ‘9월 총파업사건’, ‘10.1 대구 폭동사건’, ‘1947년 제주 4.3폭동사건’, ‘1947년 8월 4일 서울방송국 적화공작사건’, ‘5.10 선거 반대공작사건’, ‘남노당 국회푸락치사건’, ‘무장게릴라 침투사건’⁵¹⁾ 등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의 총복으로 변신한 남노당 간부들

연번	성명	직위
1	김달삼	제주도당위원장(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	강문석	남노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3	이현상	전남도당위원장 겸 지리산 빨치산 지대장
4	남도부	영남지구 유격지대장
5	이호제	오대산 유격지대장
6	변인상	서울시당 간부부장
7	강진	남노당중앙위원(반 박헌영과 거두)
8	서중석	인민혁명군 남북연락책
9	이삼혁	남노당중앙위원(프락치 공작책)
10	이선장	남노당 경북도당위원장
11	황태성	남노당경북도당 조직부장
12	김일식	남노당 대구시 당 위원장
13	나윤출	경북도인민위원회 보안대장
14	염필수	남노당 대구시 당 조직부장

출처 : 동북아전략연구소, 북한의 대남공작 전모(동북아전략연구소, 2003). 66면.

50) 박중문을 중심으로 6차에 걸쳐 1,200만원 위조지폐 발행하였다.

51)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2,400여명 남파하였다.

나. 전후복구 및 폭력혁명시도기(1954~1970)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한 김일성은 8월 5일 당 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휴전협정으로 얻어진 평화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강력한 혁명기지 건설 강화사업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전쟁준비와 후방을 복구 재건하는데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재남침책동을 은폐시키면서 보다 유리한 시간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평화 정치공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대남전략의 당면 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혁명 임무와 과업으로 미군 축출, 지주, 예속 자본가 청산, 민주정권 수립, 민주개혁 실시, 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내 지하당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일대학과 송도정치경제대학을 신설하여 남한출신 공작원들을 대량육성 침투시키고 각 지방에 공산대학을 신설하는 등 남조선해방을 위한 준비로서 재남 지하당 재건공작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⁵²⁾

1954년 “모든 것을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4월에는 “혁명의 성격과 과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는 한편 1956년 당 제3차 대회를 소집하고 평화통일선언을 채택하여 외세 배격,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6개항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기반과 군사기반을 재건하는데 총력을 기울

52) 김기도, 정치선전과 심리전략(도서출판 나남, 1989). 250~251면.

이면서 남한과 대립적 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각종 평화적 제의로 대남통일정책을 수행하면서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⁵³⁾

1960년대 북한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용하여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추진하는 전환적 계기를 맞이하였다.⁵⁴⁾

북한은 “남북연방제 통일안”(1960년 8.15해방 15주년 기념대회)과 “남북연방제통일방안”(196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8차 회의)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남북교류와 남북협상안을 내세우는 등 위장평화 통일방안을 비롯하여 남북교류 협상문제를 연속적으로 제기하는 정치선전공세를 강화하였다.

김일성은 1960년 5월 대남 담당요원들과의 담화에서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 번 놓쳤습니다. 그 한번은 6.25이고 또 한번은 4.19입니다. 6.25 때는 박헌영의 허위보고 때문이었고 4.19 당시에는 연락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가 함경북도 지방에서 현지지도 하던 도중에 4.19가 터졌다는 보고를 받고 평양으로 달려올 정도로 연락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4.19는 남조선혁명이 무르익었다는 징조입니다. 이제 다시 4.19와 같은 유리한 기회가 다가오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때를 대비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⁵⁵⁾ 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61년 5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결성하고 5.16군사혁명 이후 강력한 반공정부가 수립되자 지하당 구축공작을 본격화하면서 폭력전술

53)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한울, 2005), 121~122면.

54) 예상치 못했던 4.19 봉기가 일어나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었으며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55) 김건, 김일성 비밀교시 및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동북아전략연구소, 2003), 16~17면.

확대 개편된 대남공작기구

3호 청사	예하 부서	공작 지도과	공작 능력
남조선 사업국	연락부	각도, 직할시 담당	1개 지도과-4개 공작 팀
		지도과 10개 과 (서울, 경기 등)	1개 팀당-5개 공작조 1개조(1-2명)
	문화부	해외 담당 지도과	1개 지도과-4개 공작 팀
		10개 과(유럽, 동남아, 일본 등)	1개 팀당-3개 공작조 1개조(1-2명)
작전부	해상연락소 4개소 (남포, 해주, 원산, 청진)	1개 연락소-3개 방향(대대 급)	
	육상연락소 2개소 (개성, 평강)	1개 방향-6개 안내 조 해상연락소 1개 방향 공작선 2척(자, 모선) 공작선1척-선원 8-10명	
중앙당 정치학교	기초 교육 반(1-2년)	기초 교육 반-1기 200명	
	지도 핵심 반, 외국인 게릴라 반, 안내원 육성 반	지도 핵심 반-1기 20명 외국인 게릴라 반-5-60명 안내원 반-100명	

0 중앙당 정치학교 부지는 300만평 규모이며, 1975년 이후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으로 개칭됨.

0 밀봉 초대소는 전국 도처에 500여개 설치되어 있는 바, 기초교육을 마친 공작원(연락부, 문화부, 외국인 게릴라 등)들을 밀봉교육과 동시 공작준비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0 1960년대 말 휴전선 일대 철책장애물 설치로 육상침투가 어려워지자 평강연락소를 폐쇄했고 개성연락소는 강상침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음.

0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중앙당정치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마치고 연락부 밀봉초대소에 배치되어 임무 부여와 동시 공작구상에 착수하며 공작준비가 완료되는 차례로 남파시키고 있음.

0 1980년대 이후 남한출신 공작원 원천이 고갈된 사정과 관련 북한 출신 2세로 세대교체하고 남한의 좌익운동이 합법화됨에 따라 연락부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해외공작과 우회침투 비중을 높였음.

출처 : 동북아전략연구소, 북한의 대남공작 전모(동북아전략연구소, 2003).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전쟁준비에 주력하여 왔다.

대남연락부와 문화부를 통합하여 남조선국을 만들고 초대국장에 정치위원 겸 직업동맹위원장인 리효순을 임명하는 한편 남한에 연고를 둔 공작원들을 대거 물색하고 대남공작 기구를 각 부문별(정당, 정치, 일반, 경제, 군 관계, 청년학생, 교육, 언론 등), 각 지역별(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로 상세히 분담하여 전개했다.⁵⁶⁾

또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1961년 9월 11일 당 제4차 대회부터 혁명적 당의 지도 아래 노농동맹을 정점으로 한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이라는 남조선혁명론을 채택⁵⁷⁾ 하였다.

1963년 4월 정치위원회를 소집하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총국과 조사부를 신설하였다.

전후복구시기의 대남공작은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판단하고 정전이라는 시간적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평화공존을 내세워 체제 및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고 재남침을 위한 결정적시기를 대기하는 잠복기 전술을 구사하였다.

또한 반제 반봉건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채택하여 반정부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위장 평화공세 및 지하당공작에 역점을 두면서 대대적인 전쟁준비와 함께 지하당을 재건하고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결정적시기를 대비한다는 장기포석의 방책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북한의 대남공작은 혁명의 객관적 여건이 만조기 전술단계였으나 주체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정면 공격보다는 공세적 방어용 전술

56)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글, 1993), 193~200면.

57)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한울, 2000). 327면.

을 구사하여 왔다.⁵⁸⁾

특히 자유당 정권의 붕괴와 민주당정권의 수립되기까지의 정치적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혁신세력의 대거진출, 민주당정권의 약화, 대공경각심 해이 등을 이용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위장 평화 정치공세와 지하당구축 공작을 본격화한 시기로 평가된다.

또한 폭력전술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독자적인 전쟁준비에 주력하였다. 특히 한국에 혼란을 조성하여 무력남침에 대응하는 한·미 측의 의지와 힘을 시험하여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이 방어적 태세에서 공격적 태세로 전환시키고 평화통일공세 강화와 파괴, 테러공작 등 군사적 공세 강화, 통일전선 전략·전술을 응용한 남한내 혁명운동 및 교란공작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사건은 간첩 김정네사건(1957.8.22.), 1958년 진보정당 및 KNA기 납북사건, 1959년 팔공산 공비사건, 1960년 간첩 송종식사건, 1961년 간첩 황태성사건, 1962년 인민혁명당사건, 1964년 공군기(F-86D) 격추사건, 1967년 동백림사건, 어선납북사건(1967~1968년 동서해상에서 총 136척, 어민 1,115명 납북), 1967년 6월 운수봉지구 및 동년 7월 정읍 내장산 지역에 무장게릴라 침투, 1968년 미 프예블로호 납치사건, 1968년 통일혁명당사건, 청와대 무장간첩 납파사건,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사건, 1969년 미국 정찰기 EC-121기 격추 및 KAL기 납북사건 등이 있다.

58) 북한은 간첩 김수영과 김송무를 납파시켜 김종태, 최영도, 김길락, 이문규 등을 포섭하여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 위원회를 결성하고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 받아 암약하다가 1968년 7월 일망 소탕되었다.

1967년 3월에는 비정규전 전문부대로서 124군부대를 신편하고 283부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게릴라부대를 대폭 증강하여 무장공비를 남한에 침투시켜 청와대 기습사건, 삼척·울진 무장공비사건, 열차 폭파사건 등을 자행함과 동시에 지하당 조직건설에 주력하였다.

다. 위장평화공세기(1970~1975)

1969년 11월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안이 제기되고 미·소의 대탕트와 1970년대부터 대두된 미·중 화해분위기, 미국내 경제사정 악화 및 반전·반미운동의 고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전략의 전술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1970년 11월 당 제5차 대회에서 대남전략의 기본방향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으로 규정하고 4대 군사노선에 의한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면서 한국 내 통일혁명당이 창당되었다고 위장 선전하는 등 한국 내에서 종래의 각종 투쟁 형태에 반합법 투쟁전술을 새롭게 제시하여 반정부 투쟁에 총궐기 할 것을 호소하였다.

1973년 8월 28일 남북대화와 아무런 관계없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철폐, 용공인사 석방, 소위 통일혁명당을 포함한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화 참여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위장평화정치공세의 한 형태로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전선형성에 주력하는 등 공세적 방어용 전술로 우회공격형전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새로운 공작환경을 조성하고 통일혁명당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각급 통일전선조직과 대중조직 및 인민군을 강화하여 4대 군사노선을 관철해 만단의 전투준비 태세를 완성해 나갈 것과 남한의 반정부 투쟁을 고무·추동하여 군사정권을 고립·약화시켜 혁명의 사회적 여건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⁵⁹⁾

이 시기 북한의 대남공작은 혁명의 주·객관적 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공세적 방어용 전술로서 우회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닉슨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민족

59)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북한연구소, 1996), 198면.

내부문제를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 내부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산물로 반체제 계급투쟁이 양성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남전략의 기본방향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재남침 준비와 남한혁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위장평화정치공세의 한 형태인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전선형성전술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지하당조직 구축과 남침용 당굴 굴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사건은 1971년 KAL기 납북미수사건, 소흑산도 간첩선 침투사건, 1973년 휴전선침투 무장간첩사건, 휴전선 남침 땅굴사건(1974년 11월 제1땅굴, 1975년 3월 제2땅굴), 1974년 2월 25일 울릉도거점 간첩단 사건, 1974년 8월15일 대통령 저격미수사건, 1974년 11월 5일 일본거점 간첩사건, 1975년 2월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이 있다.

2. 김정일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

김정일시대 대남공작⁶⁰⁾은 과거 30년간 토대공작 중심의 대남공작을 총화하고 새로운 대남공작으로 지도핵심공작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공작을 주요 시기별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은 통일전선 및 우회침투강화기, 통일투쟁 및 대화공세강화기, 대남유화국면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통일전선 및 우회침투강화기(1975~1979)

김정일은 남한의 군사정권을 전복하지 않고서는 대남전략·전술적 여건조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청년 학생들

60) 김정일시대 대남공작은 1975년 중반부터 2009년까지 김정일이 대남공작을 담당하기 이전 시기까지를 의미한다. 송경호, 앞의 책, 84~91면.

과 재야세력들의 반정부투쟁, 반파쇼민주화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한국 정부 진복을 목적으로 한 반파쇼민주화 투쟁에 혁명여건조성의 초점을 맞추었다.

1975년 6월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대남사업 전반을 집중검열하는 총화사업을 단행하였다.⁶¹⁾

김정일이 제시한 새로운 대남공작방침은 통일전선에 기초한 2:1 대남 우위역량 확보(북한 1+ 한국 내 친북세력 1> 한국 내 체제수호세력 1)와 5대 집중포위 공세를 의미한다.⁶²⁾

북한은 1976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지도핵심을 준비하여 1980년대부터는 대남공작방향을 전환하였다.

대남공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정일이 대남공작을 직접관장하면서 공작부서의 간부진을 대거 교체하고 연락부 축소, 조사부를 확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 1980년 1월까지 약 600여명의 공작원들을 젊은 층으로 세대 교체하였고⁶³⁾ 1978년 공작 장비 및 기자재 연구소를 신설하여 공중침투를 위한 AN-2기, H-500헬기의 수입, 수중침투를 위한 새로운 잠수함과 공작선(수중 추진기, 반잠수정, 공작선에 SA-7휴대

61) 김정일은 과거 대남공작사업이 남한 출신 중심에 치우치다 보니까 혈연중심의 토대 공작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대남공작에서 기본원칙들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적 조직건설이 가족, 당, 연고 있는 친인척 그룹구성, 오가잡탕 조합으로 전락되었으며 간부들의 독단성과 독신주의, 관료주의가 대남사업을 망쳤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날 대남공작의 경험과 교훈만을 토대로 지도핵심공작을 새롭게 구축할 데 대한 새로운 대남공작 방침을 제시했다.

62) ① 조직적 공세로 지하당 구축 및 동조세력을 확대시키며, ② 사상공세로 적개심 주입과 각종 분규 유발 및 반정부 투쟁, 심리전 공작을, ③ 정치공세는 각종 제의 및 무분별한 감상적 통일논의, 선전선동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④ 대외공세는 해외에서의 친북반한 활동 지원 및 반한모략, 한·미, 한·일 이간, ⑤ 군사공세는 군 현대화로 군사적 위협 가중 등을 의미한다.

63) 과거 이남출신 중심이었던 공작원선발을 혁명가 유자녀, 대남간부 등 당 간부 자녀를 중심으로 선발하여 장기교육을 통해 정예의 공작원을 육성하였다.

용 미사일 탑재)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공작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공세에 한계를 느끼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반합법, 비합법영역에서 통일전선 공작과 일본 및 미주, 구라과 등 반한교포세력들을 결집하여 우회 침투공작을 본격화하였던 시기로 평가된다.

주요 사건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년 8월 제3 신진호 납북사건, 1977. 3. 24일 11인조 간첩단사건, 1977년 미군헬기 격추사건, 1978년 남해 거문도 간첩선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등이 있다.

나. 통일투쟁 및 대화공세강화기(1980~2000)

1979년 10.26사태와 제5공화국의 출범은 대남공작의 새로운 상승기를 예고하였다.

북한은 1980년 10월 당 6차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고 10대 시정방침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첫째는 남한에서 군사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둘째는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셋째는 미국의 두 개 조선 책동을 저지시키면서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를 제시하였다.

더구나 반미자주화 구호를 새롭게 전면에 내걸고 이를 자주, 민주, 통

일투쟁과 결부시키는 정치선전 공세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면서 한국 사회를 불안, 동요, 혼란, 교란, 분열시키는 갖은 모략선전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김정일은 1980년대 들어 대남공작의 주요 전술방침으로 남한에서의 지도세력 확보, 대중운동·통일운동에 대한 정치·조직적 지도 보장,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화전양면 전술을 제시하고 네 가지 공작전선을 구축하였다.⁶⁴⁾

1985년 통혁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고 반정부 반체제세력의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남한혁명역량의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상하층통일전선전술을 극대화시켜 남북대화 재개 및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저지를 위한 노·학 연계 투쟁 강화 등 매우 적극적이며 다양한 방법의 전술을 구사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9월 6일 소련에서 공산당 활동 금지, 1992년 8월 24일 한·중 국교 정상화 등으로 북한의 국제혁명역량이 약화되자 북한의 대남테러노선은 대화공세로 전환하였다.

1991년 11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한편 국내의 친북좌익세력을 적극 지원하여 대대적인 통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통성 시비가 약화되자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 하면서 관민분리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남한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민족 대회 등을 통해 남북한, 해외동포를 연계한 친북통일세력 구축 통일전선공작에 주력하여 왔다.⁶⁵⁾

64) 김정일이 제시한 네 가지 공작전선은 첫째, 안전하게 지하당 조직공작을 전개, 둘째 합법·공개적인 정치·사상 선전공세 전개, 셋째 합법적 정치공세 전개, 넷째 테러형식의 축력공세를 전개하여 주로 전략적인 대상을 향해 목적, 의식적으로 테러를 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신평길, 앞의 책, 240~241면.

1991년에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를 결성하고 1991년 9월에는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였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은 북한이 남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새로운 대남정책의 출발을 예고해 주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종전과 같은 비합법 지하당 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공작 방침·전술로는 안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 힘을 조성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방침은 지하당 내에 3개 축을 형성하며 3개 복선을 형성하는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이 제시한 3개축과 3개복선 포치 방침은⁶⁶⁾ 첫째, 이미 조성된 통일혁명당과 한민전 조직을 강화하고 둘째, 남조선 노동당 조직을 새로 조직·포치해야 하며 셋째, 합법적인 정치투쟁 공간이자 대중 집결의 중심체로 합법적인 간판을 내건 중간 혁신정당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보위문제를 전략적 근본원칙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1995년 적화통일 완수를 위한 기본과업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합법공개적인 정치투쟁형태로써 남북대화와 회담을 조직·전개하고 둘째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남한 내 지하당 조직건설공작을 강화시키면서 셋째로 합법공개적인 통일전선 형성공작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또한 남북대화, 남북고위급회담을 정치투쟁의 주선으로 장악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지하당 구축 조직공작과 병행하였다.⁶⁷⁾

65) 1989년 신년사를 통해 북남정치협상회의를 1990년에는 남북당국 정당수뇌협상회의, 1991년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제의하고 통일전선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66) 신평길, 앞의 책, 276~278면.

67) 남한 및 해외의 통일운동세력을 활성화·조직화하여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를 형성한다는 목표 하에 범민련 및 범청학련을 결성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남한-해외의 지지세력 및 여론 확대를 꾀하면서 반정부 재야·학생운동 세력들과 연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직적 연결고리를 확보하기 위해 합법·공개적인 통일전선 형성공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

1980년대 대남공작은 혁명의 주·객관적 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보고 하층통일전선을 극대화시켜 남한 자체 내에서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조성하여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무장봉기)의 여건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방어용 전술과 북한의 자체 역량 비축 및 대열정비를 위한 수세적 방어용 전술을 구사하는 양면전술을 구사하였다.

1990년대 대남공작은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관적 여건을 상향성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자체역량을 비축하면서 대열정비를 위한 수세적 및 공세적 방어용 전술의 양면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 비해 대남공작방식이 대담하고 통이 큰 사업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특징을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변혁운동권 내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이고 혁명적인 진보분자들을 선별 육성하여 새로운 지하당 구축 및 합법적인 진보혁신정당 형성 공작에 총력투쟁을 경주하였던 시기로 평가된다.

주요 사건은 1980년 12월 경남 남해군 미조리간첩사건, 1981년 7월 4일 중부전선 침투 무장간첩사건, 1981년 미정찰기 SR 71 격추사건, 1981년 제일동포 유학생간첩사건, 1982년 고성침투 무장간첩사건, 제5마산호 납북사건, 1983년 문산 임월교 수중침투사건, 1983년 12월 부산 다대포해안 전충남, 이상규 간첩침투사건, 1983년 버마 아웅산폭파사건⁶⁸⁾, 정해권 및 김병주 간첩사건, 1985년 군부침투기도사건, 김철 및 신광수, 안상근 간첩사건, 1986년 간첩 이병설사건(서울대 교수), 김포

다.

68) 1983년10월 미얀마 아웅산 묘소 대형폭사사건은 김정일의 특명에 따라 인민무력부 경찰국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사전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관을 아지트로 사전 정찰과 현장 답사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여 서준석 부총리를 포함 17명의 각료들이 순직했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본 사건 직후 도주하던 폭파전문가 신기철은 미얀마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고 조장 진모 소좌와 조원 강민철 대위는 자폭을 시도하다 부상당한 채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공항 폭탄테러사건,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 1989년 서해상 어선 나포 및 서경원 사건, 1990년 제4땅굴사건, 1990년 간첩 서순택사건, 1992년 간첩 김낙중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범민련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6년 강릉침투 잠수정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사건,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등이 있다.

다. 대남유화국면기(2000~2009)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대대적인 대남유화전술을 구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을 자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을 유포시키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2003년 8월 1일 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4년 구국전선을 통해 한민전 신년메시지 발표하고 남한 내 주요 사건이나 시기별 대남투쟁 지침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달하여 왔다.

특히 대남혁명의 주체를 애국적 전위투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로 규정하고 대남투쟁 과제로 반미자주화, 선군정치지지옹호, 조국통일 투쟁, 민주화투쟁, 올바른 대남투쟁의 전략·전술을 구사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범민련과 한총련, 범청학련 등 운동권 단체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통일인사 석방, 비전향장기수 송환, 조미 평화협정 체결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고무·지원하는 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한국 내 국론분열을 꾀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의 대남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문민정부에 대해서는 김영삼 반역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으며 동족이 전쟁의 참화를 들쓰는 것도 피할 수 없다⁶⁹⁾고 비난하면서 문민정부를 괴뢰도당, 역도, 매국노, 반통일세력,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상호주의와 햇볕론이라는 대결론을 부르짖으며 반북대결 전쟁정책으로 북남관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남조선 괴뢰들의 반통일, 반민족적 책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전선동 하면서 김대중 정권을 김대중 일당, 국민 통치배,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은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객관적 여건을 하강성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수세적 및 공세적 방어용 전술을 구사하는 양면전술을 구사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대남유화노선으로 전환시켜 왔다고 평가된다.⁷⁰⁾

또한 과거의 비평화적 방도의 적화통일전략에서 평화적 방도(연방제통일)에 의한 적화통일을 우선시하고 차선으로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적화통일 수행으로 그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등 실리를 추구하면서 체제유지

69) 로동신문, 1995. 5. 5.

70) 첫째, 한국 내부의 반공반북의식과 대북경계의식을 희석화 시키고, 친북 친공 의식 및 연북연공의식을 확산시키려는데 있다.

둘째,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상하층통일전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친북좌익세력의 입지를 간화시키면서 보수우익세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통일지상주의와 감상적 민족주의를 이용해 남한 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느슨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여 남북합작의 실현(낮은 단계의 연방통일)을 꾀하고 있다.

넷째,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활동 합법화로 우리 내부의 군사적 공백상태를 연출하고 사회교란을 확산시켜 이른 바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를 위해 안보와 경제를 대남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방송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조국통일3대헌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김일성 부자의 혁명사상과 영도력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찬양선동하면서 합법·비합법 공작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상하층 통일전선공작으로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한미간 이간을 획책하는 한편 남한혁명역량 강화 및 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주력하여 왔다.

주요 사건은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06년 일심회사건, 강순정사건, 실천연대사건, 2008년 원정화 간첩사건 등이 있다.

3. 김정은시대 대남공작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

김정은시대의 대남공작⁷¹⁾은 과거 60여 년간 진행된 대남공작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2012년 강성대국 진입에 편승하여 유화적이고 공세적인 대남전술을 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공세적 대남공작추진기(2009~현재)

북한은 2009년 5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⁷²⁾ 2011년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승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등 당 정군의 최고 직위를 모두

71) 2009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한다.

72)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고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또한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북한은 제3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고 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김정은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후계자에 대한 군의 충성맹세를 다짐하였다.

차지하고 공식적인 권력승계절차를 완료하였다.

2009년 대남공작 기구를 전면 개편하고 대남 공작권을 당에서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을 신설하고 당 대외연락부를 225국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으로는 내각 소속으로 위장하고 당 통일전선부는 축소 운영하고 있다.⁷³⁾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민심이반 형상이 가중되면서 신·구 세력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이후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으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방식을 통해서 핵보유국의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기조는 대남유화, 대남유화적대 배합, 대남적대노선을 추구하면서 공세적인 대남공작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2009년에 들어서 전쟁불사 등 대남위협공세를 강화하면서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발사실험,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 2010년 11월 우라늄 생산시설 전격공개 하는 초강경노선을 구사하면서 비타협적인 대남군사노선을 추구하였다.

특히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인천지역에 왕재산(2001년 3월)이라는 지하당을 구축하고 산하 인천지

73) 유동열,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자유민주학회 제24차 세미나(자유민주학회, 2012. 2. 7), 16면.

역당(월미도)과 서울지역당(인왕산)을 조직하여 활동하여 왔다.

이들 조직은 인천지역을 혁명거점화하고 2014년까지 인천지역에 3개의 행정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하고 군부대 및 정유소, 주안공업단지 등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여명의 조직원을 노동계, 재야, 학계, 여·야 각 정당 등에 세력을 확대시켜 오다가 일망타진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공작은 대남유화, 적대노선을 배합한 공세적인 대남공작을 추진하면서 중상층통일전선공작에 주력하였던 시기로 평가된다.

주요 사건은 2009년 11월 10일 제3차서해교전(대청해전), 2009년 11월 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공작원 직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폭침 사건, 2010년 6월 30일 간첩 한춘길 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도발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단사건, 2011년 11월 18일 간첩 김정근 사건, 2012년 5월 13일 간첩 이대식 사건, 2012년 8월 29일 간첩 장학준 사건 등이 있다. 이외에도 NLL을 침범하고 비무장지대(DMZ) 등 대남도발을 자행하는 등 정전체제 무력화조치를 취해 왔다.

나. 김정은시대 대남공작 특징

김정은시대 대남공작은 대남 공작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지하당구축공작 및 테러공작, 무력도발을 병행한 공세적 대남공작을 추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 북한은 중요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당 또는 군이 대남공작을 전담하여 수행하여 왔다. 결과 군 중심의 대남공작이 당 중심의 대남공작에 비해 더욱 강력한 대남공작을 전개하여 왔다.

더구나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대남 공작 기구를 기존의 당 중심에서 군 중심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이 더욱 강

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찰총국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에게 직접보고 할 수 있도록 직보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은 김정은 자신이 남한혁명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첫째, 새로운 지하당구축공작을 강화시킴으로서 남한혁명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친북인사 및 단체들을 지하조직에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11년 왕재산 간첩단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인천지역을 혁명거점으로 육성하고 2014년까지 인천시지역의 3개 행정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는 준비와 군부대, 정유소, 주안공업단지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여 왔다.

북한 정권이 남한지역의 지하당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 ① 남한 지역에서 정권 탈취를 위한 혁명세력이 존재함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지하당 세력의 신심을 북돋아 주고 필요시 북한이 남한혁명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 ② 북한 내부의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을 희석시키고 당과 북한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무기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 ③ 남한 전 지역의 공산화를 목표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④ 지하당공작 구축 공작을 통해 평화시기에는 주로 정보수집과 불온 사상유포, 친북인자 유입 결속, 지형정찰 등을 토대로 활동을 진행하고 유사시에는 남한혁명의 척후병으로서 주력부대의 길잡이, 주요 인사 검거, 주요시설 파괴, 주요지역 장악, 임시치안확보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수행하게 된다.

둘째, 김정은시대 출범과 더불어 대남 군사적 위협을 가증시키는 공세적 대남공작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해군 제2함대 소속 초계함 1,200톤급 천안함을 어뢰공격으로 폭침시키고 46명의 군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천안함폭침사건은 한국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한다면 언제든지 대남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모험주의에 따른 무력도발로서 전후 이러한 예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⁷⁴⁾

또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은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포격도발사건을 통해 한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틀어쥐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셋째, 탈북자를 위시한 합법적 공작원침투와 대남 사이버공작을 강화시키고 있다.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사건은 김명호와 동명관사건(2010), 원정화사건(2008)년 등을 들 수 있다.

원정화 사건은 중국에서 한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고 입국시킨 위장 간첩사건이다. 북한은 원정화에게 탈북자 동향과 국가 주요시설 위치 파악, 황장엽씨 위치 파악 등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였다.

김명호 동명관은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으로서 위장 탈북하여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가 보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74)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한 잠수정 승조원들을 사건 6개월 뒤 2계급 특진시키고 함장과 부함장, 기관장, 갑판장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2012. 12. 8.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과 2011년 4월 농업전산망 해킹에 따른 전산마비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망과 국가기간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다. 향후 대남공작 전망

김정은시대 대남공작은 대남공작역량 강화와 지하당 구축공작 및 통일 전선 공작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대남 공작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 ① 공작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상검토와 세대교체를 단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대내외의 변화된 정세에 편승하여 대남공작 방향을 수정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중단기적 과업을 제시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분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③ 공작 장비의 현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 ④ 공작원 훈련을 한층 강화하면서 지도핵심 중심의 공작원 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정치공작과 무장공비, 테러공작을 병행한 공작기반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하당 구축공작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남북한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정구역 단위(군, 시, 구)에 1개의 공작 거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은 생전에 남한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 각처에 지하공작 거점을 모래알처럼 깔아 놓았다고 주장하여 왔다. 더구나 1970년대 말부터는 이들 지하공작 거점들을 필요시 2~3개 망을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2의 통혁당, 제2의 왕재산 지하 공작 망과 같은 북한의 공작 거점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① 기존 지하당을 재정비하고 김정은에게 충성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② 한국에서 생성한 자생적 친북 집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하당 구축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③ 학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를 중심으로 지하당 구축을 모색하고 기존 조직의 합법화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셋째, 통일전선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전선공작은 중하층통일전선공작에 주력하면서 상층통일전선공작과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은 기성단체들과의 제휴공작, 신규단체의 조직 결속, 연합전선형성공작으로 나누어 치밀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성단체와의 제휴공작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① 각 정당 사회단체를 상대로 한 통일전선공작은 지하당 전문공작소 조에 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다.
- ② 남북관계의 변화에 신축성을 기하면서 내선공작과 외선공작을 병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대상조직의 특성에 맞게 공작상대를 기술적으로 유도하면서 체후관계가 형성된 정당 및 단체에 대해서는 유대관계를 공고화시켜 나갈 것이다.

신규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신규조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② 각 지역 부문단위에 집중적으로 조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지역 실정에 따라 합법, 반합법, 비합법, 대·소규모의 군중단체를 병행하여 조직하고 계층별 군중단체와 통일전선체적 군중단체를 밀접히 배합하여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합법적 활동무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단체가 북과 연계되지 않고 현지에서 자생한 것처럼 철저히 위장하면서 생산적 지역의 단위별로 조직하고 중요 요충 지대로부터 집중적인 조직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차원의 합법적 통일전선공작은 적십자회담, 장관급회담, 체육회담, 기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반합법 통일전선공작은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와 아태평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제민전을 중심으로 한 반합법 및 비합법 통일전선공작은 경찰총국과 225국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V.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와 변화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고 향후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을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공산집단은 한반도 공산화를 최종목표로 제시하고 해방 후 현재까지 남북한의 내부사정과 남북관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한혁명과 조국통일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지속적으로 대남공작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고통과 재난만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국제적 고립 탈피에 주력하면서 한국 내 친북세력들의 호응 등에 편승하여 남한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고⁷⁵⁾ 안보에 관한 범국민적 일체감과 방위의지를 제고함과⁷⁶⁾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남북한 화해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총력안보태세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

75) 국방연구원,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안보전략(국방연구원, 2000), 26면.

76) 김해호,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8면.

색해 나가야 한다.

① 백령도지역의 군사요새화를 추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장기통치가 예상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화생방무기를 갖춘 군사강국임을 감안 할 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백령도에 서해5도 사령부를 상주시키고 해병6여단을 점차 사단급 부대로 육성하고 이 지역에 해군 1개 전대, 기갑 1개 연대, 포병 1개 연대를 각 군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차출하여 전진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사령부 예하 직속부대로 항공대(공격형 헬기 1개 중대), 미사일, 통신, 공병, 화학, 병참, 정찰, 수송대대 등을 배치하고 2개의 활주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해주, 웅진반도를 비롯한 평양지역을 필요시 공격할 수 있는 다기능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면 북한은 현재처럼 서울 불바다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백령도는 한국의 8번째로 큰 섬이고 광활한 농경지와 수자원, 주변 산들로 철벽의 방위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형(산과 들, 해안)들을 완전히 요새화하고 약 1만 5천명의 병력을 상주시킴으로써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자체로 방어하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를 사수할 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현재 개발하고 있는 비대칭무기의 사정거리를 약 1,500Km(필요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의 중거리 미사일로 개발하여 실전배치 해야 한다.

③ 국민의 안보의식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은 매우 낮은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권력의 상층부에서 하부단위까지 철저한 국민정신 재교육으로 안보의

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대남공작 의도와 실태를 사안별로 명확하게 분석 검토하여 이에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친북인사와 친북단체의 활동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 ③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면서 한국 국민을 의식화하려는 불온사상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야 한다.
- ④ 사이버공간을 통한 북한의 대남심리전과 사이버테러 등에 철저한 대응조치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의 보안수사역량을 확대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2년 현재 보안경찰은 1,898명으로 전체 경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안수사대는 48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① 우수한 보안수사 전문요원들을 선발하고 보안수사역량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해 나가야 한다.
- ② 보안수사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첨단 보안수사기법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보안수사 장비의 과학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 ④ 보안협력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키고 전국민의 신고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헌

1. 국내문헌

국방부, 국방백서(1996-1997), 국방부, 1996.

국방연구원,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안보전략, 국방연구원, 2000.

김건, 김일성 비밀교시 및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동북아전략연구
구소, 2003.

김기도, 정치선전과 심리전략, 도서출판 나남, 1989.

김용현, “최근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평화문제연구소,
2010.

김호성 외, 현대사회와 이념, 문화사, 1992.

김해호,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정민, “북한노동당 35호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북한 2000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0.5.

김창순, 8.15 광복 후 남북한의 공산주의, 북한연구소, 1984.

김현기, “북한 특수부대의 실체”, 국방저널, 2001. 11.

동북아전략연구소, 북한의 대남공작 전모, 동북아전략연구소, 2003.

북한의 대남공작전술, 2004 보안실무과정, 경찰수사보안연수소, 2004.

서중건, 스탈린선집 1(1905-1931), 전진출판사, 1988.

- 송경호,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 및 추진양상”, 치안정책연구소, 2005 연구보고서, 2005.
- ,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0 연구보고서, 2010.
-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 유동열,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자유민주학회 제24차 세미나, 자유민주학회, 2012. 2. 7.
- ,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자유민주연구, 자유민주연구학회, 2011. 1.
- , “한국좌파운동 현황분석”, 자유민주연구 2010. 8,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글, 1993.
- 육군본부, 공산주의 비판, 육군본부, 1974.
- 尹元求 外, 共產主義와 急進思想 批判, 地球文化社, 1986.
-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한울, 2000.
- 이정식 외,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돌베개, 1986.
-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한울, 2005.
- 제성호, “국민 안보의식의 현주소 진단”, 자유민주연구, 자유민주연구학회, 2011.1.
-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 북한문헌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3. 국외문헌

Larson, Erick V, Preparing the U.S. Army for Homeland Security, Santa Monica, CA : RANG, 2001.

Stalin, J. V. The Foundations of Leninism(Peking : Foreign Languages press, 1965.

4. 기타자료

동아일보, 2004. 9. 9, 2010. 5. 21.

로동신문, 1995. 5. 5.

반제민전, 2010. 5. 22.

중앙일보, 2012. 12. 8.

[http:// www.chosun.com](http://www.chosun.com)

[http:// www.kr.news.Yahoo.com](http://www.kr.news.Yahoo.com)

[http://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책임연구보고서 2012-06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 변화양상과 향후 전망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조 요 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